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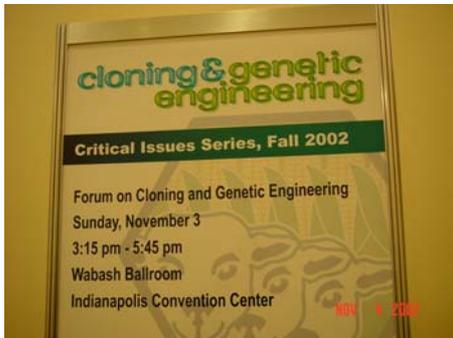
# AIChE



**AIChE 2002  
Annual Meeting**

**11•3 — 11•8  
Indianapolis, 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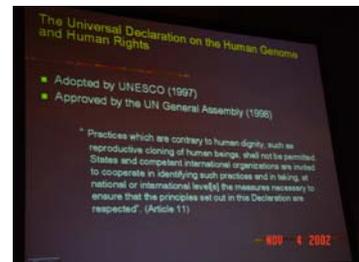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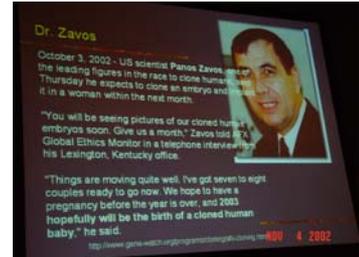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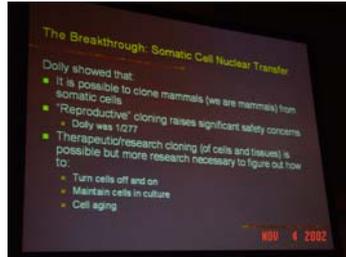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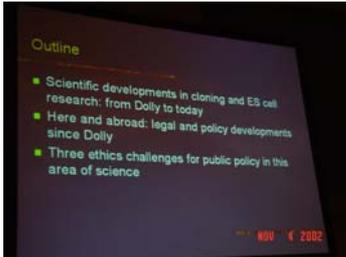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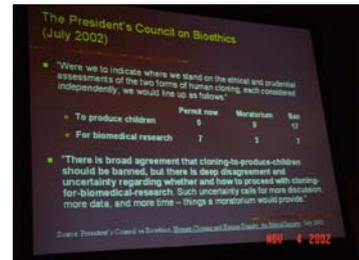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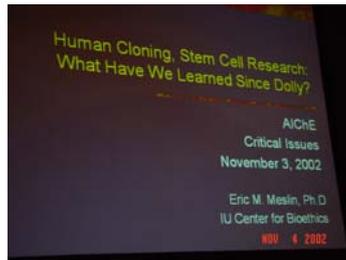
Nov 03, 2002



Michael L. Shuler 교수

자아...다시 시작해 볼까요....

오후 3 시까지 진행된 2D Electrophoresis workshop 을  
끝내고 AIChE 2002 Annual Meeting Critical Issues 를  
취재하기 위해 필자는 급히 장소를 이동하였습니다.  
Cloning and Genetic Engineering 이라는 주제로 여러  
거물급 panelist 들이 stem cell culture, germ cell culture 등  
인간복제에 관련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여론을  
형성하였습니다. 인간복제 연구에 대해 미국 정부의  
태도 변화나 국제사회의 인식변화를 거론하면서 disease  
research 에 한정되는 복제연구의 당위성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인디애나 대학의 Eric  
Meslin 교수는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강조하여  
주장함으로써 미국 내 인간복제 연구가 한정적으로나마  
현재의 불가방침에서 서서히 변해갈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기초연설에서 Cornell University 의 Michael L. Shuler 교수가 향후 genetic  
engineering 연구의 방향을 잡기위하여 critical issues 가 선정되었음을 밝힌 바 있어 상기한 흐름이  
미국 내 주류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Critical issues 가 끝난 후 미국 내 대학에서 교수직업을 갖고자 하는 박사과정학생이나 post-doc 들을 위한 poster 발표장에 다녀왔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미국학회의 포스터발표장은 국내 생물공학회나 화공학회장에 비해 상당히 뜨겁고 활발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미국 학회의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필자의 생각에는 국내 학회 발표장에서도 미국학회만큼의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게하는 좋은 묘안이 없을까하는 생각을 잡념처럼 해보았습니다. 이곳에선 일단 발표자는 절대로 자신의 게시물에서 게시시간동안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포스터 발표도 구두발표처럼 자신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presentation 이라는 생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자신이 설명을 해주겠다고 달려(?)듭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연구를 이해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국내 포스터발표를 돌아보면



일단 발표자들이 자신의 게시물 앞에 끝까지 지키고 있으면서 공격적으로 설명을 하려는 연구자를 찾기가 그리 쉽지 않았던 것이 제 개인적인 경험에 국한되는 것일까요? 필자가 사대주의를 신봉하거나 친미주의에 심취되어 있지는 않다고 자부하니 한번쯤 이 부분에 대해 독자들이 되새겨 주기를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필자도 MIT 에서 온 박사과정 학생에게 잡혀서(?) 10 여분동안 그의 연구에 대해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MIT 의 George Stapanopolous 교수님의 학생이었는데 Systems Biology 의 초석이 되는 mRNA array 관련 network 를 성공적으로 simulation 한 결과였습니다. 그도 한국에서 온 연구자에게 자신의 연구를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고 필자도 새로운 연구방법에 대해 잠시나마 배우고 그와 토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연구를 해나가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산교육장이었습니다.

일요일에 진행되었던 모든 session 이 끝나고 나서는 교수, 연구원, post-doc, 학생들이 함께 자유롭게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welcome reception 에 참석하였습니다. 음식은 그저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간단한 요리꺼리이지만 그 넓은 ballroom 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는 모습들이 눈에 많이 뜨였습니다. 자꾸 국내학회와 비교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학회장에서 교수들과 학생들이 함께 하는 자리가 드문 국내학회를 떠올리면서(사실 함께 식사하면 좀 거북살스럽고 식사만 쳐다보면서 먹다보면 소화가 안되는 것같은 기분을 필자도 느껴본 바 있음.) 뭐가 더 좋은 지를 독자들의 판단으로 돌리고 싶었습니다. 다만, 자연스럽게 선배 연구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원가를 배울 수 있을텐데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드는 것조차 막을 수는 없군요.

지금 시각이 새벽 3시...이제 잠 안자면 내일 취재에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내일로 미루죠. 안녕히 주무십시오..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윤성용이었습니다.